선유실리 _ 우애령 7

밤을 건너는 사람들 _ 이청해 33

그 맑고 환한 밤 _ 한정희 65

그곳은 어떤가요? _ 김향숙 93

번지점프를 하다 _ 정미경 127

딥 블루 블랙 _ 권지예 163

가장 전망이 좋은 집 _ 김다은 213

상쾌한 밤 _ 함정임 241

빠리 거리의 점잖은 입맞춤 _ 배수아 259

그곳에 가면 _ 고은주 289

K의 어머니와 면회를 갔다 _ 오현종 319

정박(碇泊) _ 권 리 349

해설 – '이화'라는 역어(譯語) _ 김미현 377